

# 장성 여행, 스마트하게 즐기세요

황룡강·장성호 수변길 등지에 증강현실(AR) 체험공간 조성 여행지 이야기 '오디' 서비스도



장성 힐링허브정원을 찾은 관광객이 QR 코드로 증강현실(AR) 여행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 여행, 보다 스마트하게 즐기세요. 장성군은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 등을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증강현실 기반 스마트 빌리지 관광사업"을 통해 군은 황룡강, 장성호 일원 등 5개소에서 증강현실(AR) 체험과 도보 관광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장성군이 지난해 선정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스마트빌리지 조성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점마다 설치돼 있는 안내판 속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다양하고 신기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

황룡강 힐링허브정원의 벽화 속 소녀가 살아나 꽃에 물을 주고, 서삼장미터널 인근에서는 귀여운 황룡이 출몰해 용돈을 뿌려 준다.

공설운동장인 '헬로우시티 스타디움'을 배경으로 하늘 가득 노란 꽃비가 내리고, 은행나무수국길에 가면 소원을 들어주는 은행나무를 만날 수 있다.

장성호 수변길 옐로우출렁다리에서는 환상적인 행운의 무지개와 마주할 수 있다. 관광객들의 여행을 돕는 콘텐츠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증강현실에 기반을 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운영돼 황룡강 꽃길을 걸을 때 도보 경로와 방향을 알려준다.

장성 8경과 장성호 수변길에 얽힌 이야기를 음성 해설로 들을 수 있는 '오디(Oodi)'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성 전 지역이 담긴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능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성 해설로 들을 수 있는 '오디(Oodi)'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성 전 지역이 담긴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능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강진군, 6200 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구입권

읍·면사무소서 배부

강진군이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벼 육묘용 상토 구입권을 지급한다.

강진군은 군비 9억5000만원으로 상토구입권 6300매를 제작했다. 공익직접지불제 벼 재배면적과 간척지, 논 타작물 재배 농지를 포함한 9109ha, 6245농가에 지급한다. 지난 22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배부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로 논지 면적이 최소 1000㎡ 이상이면 시판 상토 3.7포(1포당 20kg) 구입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은 없으며 경작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공

무원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지난해 기준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구입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류에 배부지역 일련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해당 보조금액, 위·변조 판별기능이 포함돼 있다. 구입권은 올해 6월17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상토 구입은 군이 특정 업체의 상토를 일괄 배포하지 않고 농가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상토 판매업체에서 '벼 육묘용 상토 구입권'을 사용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이 농가의 경영비를 줄여줘 고품질 쌀 생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뫓자리 준비를 시작으로 올해도 풍년이 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201명 모집

4억6850만원 지급...31일까지 신청

함평군이 2022년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201명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고등학생은 소속 학교에, 대학생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규모는 고등학생 18명, 대학생 175명, 특기자 8명 등 총 201명이며, 지원 금액은 4억6850만원이다.

지원분야는 고등학생(신입생 성적우수, 복지), 대학생(지역인재, 성적우수), 특기자(고등학생, 대학생) 총 3개 분야다.

올해부터 지역인재 분야 대학생은 신입생에 한

해 첫 학기 성적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개편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학생도 지역인재 분야 대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연 1회 선발하던 성적우수 분야 대학생은 지역인재 분야 대학생과 동일하게 연 2회 선발하는 등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최종 선발은 4월 말 함평군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더 많은 지역 출신 인재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5개 분야 사업자 공모

양성평등·사회참여활성화 등

주민 공동체 등 내달 22일까지 신청

나주시가 양성평등을 가치로 시민과 함께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이 구현되는 정책 발굴에 나선다.

나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부합하는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시는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공모사업 분야는 '양성평등',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활성화', '안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이다. 분야별 사업 발굴은 양성평등의 경우 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을, 경제·사회참여는 여성의 취·창업과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안전 분야는 안전한 마을 환경 만들기, 4대 폭력 근절 등에 중점을 둔다.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은 마을 단위 돌봄 공동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운영 등이다.



지난해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한 '한지로 행복한 1인 밥상' 모습.

신청 대상은 나주시 소재 활동 중인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5인 이상의 주민 공동체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신청서를 작성해 4월 22일 오후 6시까지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공모 발굴을 통해 홀몸 노인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한지로 행복한 1인밥상',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가을밤 클래식 연주회', '마한 춤 제작 공연' 등 총 8건의 사업을 추진

해 지역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도 도모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동체 역량을 갖춘 다양한 여성 주체들의 주도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발굴하는데 힘을 모아달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여성친화 시책 추진을 통해 온 가족이 행복한 나주 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김성 전 군수, 장흥군수 재출마 선언

민선 6기 장흥군수를 지낸 김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1지방선거에서 다시 군수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가장 살고 싶은 아름다운 장흥, 변화와 발전 그리고 창조하는 장흥, 행복하고 잘 사는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부금 및 공모사업 등으로 예산 7000억



원 시대 개막 ▲2026년까지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 4만명 달성 ▲농림수축임산업 육성예산 30%에서 35%로 확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신재춘 전 도지사 정책보좌관 장흥군수 출마

신재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26일 "사람이 바뀌어야 장흥이 바뀝니다. 행정전문가 신재춘은 다릅니다"를 슬로건으로 6·1지방선거 장흥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신 예비후보는 "장흥의 시대정신을 알고 장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행정전문가인 자신 뿐이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중소기업과장과 전남지사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신 예비후보는 "통합의학과 물축제를 기반



으로 장흥을 대한민국 힐링치유의 메카로 만들고 친환경 스마트농수임축산업으로 전환해 먹거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등 장흥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장달과 인재육성인큐베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